

# 『홍범연의(洪範衍義)』의 구성과 주자학적 특징

## — 「계의(稽疑)」를 중심으로 —

김정철\*

### 〈차 례〉

1. 들어가며
2. 존고(存古)적 성격과 주자학적 구성
3. 주자학적 관점을 반영한 주석- 「계의(稽疑)」를 중심으로
4.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홍범연의』의 전체 구성을 검토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그 주자학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모두 『홍범연의』가 경세서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실학적 경세서 혹은 도학적 경세서로 보는 관점이 있고, 최근에는 고대 점복적 경세의 전형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저술 의도와 전체 구성 및 인용된 주석을 상세히 분석하여 『홍범연의』의 주자학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홍범연의』는 이희일과 이현일의 저술 동기로 볼 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 아니라 기존 주석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성인 시대의 경세를 상세히 고증하여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홍범연의』는 성인의 경세를 서술한 경(經)과 주석과 사례에 해당하는 전(傳)을 차례로 배치하였다. 전(傳)에는 해당대의 주소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증하고 주희를 비롯한 송대 학자의 견해를 함께 배치하여, 주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자학의 관점에서 「홍범」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황극」 구성에서 주소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철저히 주희의 관점을 고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오사」 「계의」는 물론 별도의 장으로 편집된 「홍범연의 변」과 「홍범총론」까지 『홍범연의』의 내용은 주희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홍범연의』는 홍범구주의 아홉 조목 별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고대 경서와 해당대의 주소를 통해 성인의 경세를 고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존고(存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개별 장마다 배치된 송대 학자들의 견해는 주자학의 관점에서 「홍범」을 독해하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홍범연의』는 이휘일과 이현일을 비롯한 영남의 지식인들이 주자학의 관점에서 고대 성인의 경세학을 이해하고 정리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이현일, 이휘일, 홍범연의, 홍범, 계의, 존고(存古)

##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조선 시대 이휘일 이현일 형제가 편찬하고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보완된 『홍범연의』의 전체 구성을 검토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그 주자학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홍범』은 본래 『서경』의 편명 가운데 하나이지만 성인의 경세를 다루고 있어 일찍이 독립적으로 취급되었고, 자연히 경학사 전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홍범』의 핵심은 홍범구주로 요약된다.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육극(五福六極)의 순서로 이어지는 구주(九疇)는 고대 성인이 펼친 경세의 핵심으로 여겨졌으며, 주희를 비롯한 송대 학자들은 물론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홍범』에 대한 해석은 경학사적으로 한대와 송대에 걸쳐 크게 두 차례 집중적으로 조명받았다.<sup>1)</sup> 『홍범』과 관련된 저술은 한대부터 등장하였는데, 『홍범오행전』, 『한서』 「오행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음양오행 사상과 재이(災異)설이 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홍범구주의 첫 번째 주인 ‘오행(五行)’은 ‘오행’ 개념의 가장 오래된 경전적 근거였고, 군주의 특정 행위에 따라 천(天)의 상벌이 결정된다는 재이론적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홍범』은 송대에 다시 집중적으로 재조명되면서 다양한 저술과 주석이 등

1) 중국의 상서학 연구자인 유기우(劉起鈺)는 한대 『홍범』 해석과 비교하여 북송 시기의 새로운 해석 [新解]이 등장하는 흐름을 조망하였고, 일본의 연구자 아즈마 슈지(吾妻重二) 역시 『홍범』에 관한 연구가 한대에 일어나 한차례 유행한 뒤 송대에 다시 유행하는 구도로 정리하였다. 劉起鈺, 이은호 옮김, 『상서학사』, 예문서원, 2016, 361~382쪽; 吾妻重二, 『朱子學の新研究』, 創文社, 2002, 84~103쪽.

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대와 달리 『홍범』을 인(人)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한대 경학에 대한 극복 시도이면서, 고대 성인의 경세를 천(天)이 아니라 인(人)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sup>2)</sup>

다만 천인 관계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송대 학자들은 천인(天人)을 연결한 한대의 억지스러운 해석을 거부하고 인(人)을 중심으로 『홍범』을 재해석하고자 했다. 이들 역시 유학자인 이상 경서에 기록된 천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한대 경학의 비합리적인 해석과 차별화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장경(張景, 970~1018), 호원(胡瑗, 993~1059), 왕안석(王安石, 1021~1086) 등의 학자들은 『홍범』과 관련한 각자의 저술을 남겼다.<sup>3)</sup>

이들과 달리 『홍범』 경문에 반영된 천인의 관계를 여전히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증공(曾鞏, 1019~1083)과 주희(朱熹, 1130~1200)가 대표적이다. 이들 역시 한대의 억지스러운 해석을 비판하면서도 천인 관계에 근거한 『홍범』 이해를 고수하고자 하였다. 이후 공인된 채침의 『서집전』은 바로 주희의 관점을 계승한 것으로, 후대의 주석들 역시 대부분 한대의 재이론적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천인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서전대전』을 주로 학습하였으므로, 천인 관계에 충실한 주희와 채침의 해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였다. 특기할 점은 『홍범』에 등장하는 기자(箕子)의 존재가 매우 주목받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고대 현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지만, 17세기 조선에서 기자는 동방을 교화하여 문명의 길로 이끈 최초의 스승이자 왕으로서, 성인에 필적하는 인물로 존송 되었다.<sup>4)</sup> 기자에 대한 인식은 특히 17세기 조선에서 눈에 띄는데,<sup>5)</sup> 『홍범연의』는 17

2) 이즈마는 송대 홍범학의 성격을 한대 재이론적 해석에 대한 극복 과정의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吾妻重二, 앞의 책, 89~103쪽.

3) 장경(張景)은 『홍범해(洪範解)』, 호원(胡瑗)은 『홍범구의(洪範口義)』, 왕안석(王安石)은 『홍범전(洪範傳)』을 저술하였다. 이즈마는 송대 학자들의 『홍범』 관련 저술을 45종으로 정리하였다. 吾妻重二, 앞의 책, 84~87쪽.

4) 기자를 존송하는 분위기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성인에 필적하는 인물로 이해한 것은 대략 17세기 인조 때 이후부터였다. 신주엽, 「17~18세기 箕子 유적의 정비와 기자 인식」, 『대구사학』 148, 대구사학회, 2022, 18쪽.

5) 기자에 대한 존송과 인식은 이미 이전 시기부터 나타나지만, 17세기 조선에서는 학자들이 이를 경

세기 당시 명(明)의 패망에 따른 중화 문명의 위기의식과 기자 중심의 도통 의식을 반영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홍범연의』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박세채의 『범학전편(範學全篇)』, 우여무의 『홍범우익(洪範羽翼)』과 같은 저질의 「홍범」 관련 저술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sup>6)</sup> 이들은 세부 구성과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기자에 대한 존승과 도통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홍범연의』는 방대한 분량뿐 아니라 상세한 고증으로 주목할 만한 저술이다. 다만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많은 편은 아니다. 크게 『홍범연의』의 간행과 판본을 분석한 논문,<sup>7)</sup> 특정 분야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한 논문이 있고,<sup>8)</sup> 편자인 존재와 갈암의 사상을 다룬 연구,<sup>9)</sup> 제왕학적 성격에 주목하거나<sup>10)</sup> 저술 자체의 성격에 주목한<sup>11)</sup> 논문이 있다.

처음에는 주로 실학적 경세서로 평가받았지만, 이후에는 다른 시각들도 나타났다. 김성운은 『홍범연의』에 도학과 실학의 사유가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sup>12)</sup> 최영성은 『홍범연의』를 통해 존재와 갈암의 사상을 조명하면서 이 책이 남인 홍범학의 결정판이며 경세의大本(大本), 대경대법(大經大法)을 제

학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된다. 참고, 『남계 박세채의 『범학전편(範學全篇)』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1, 33~34쪽 참고.

- 6) 이들 저술의 목적은 경서 자체에 관한 해설도 있지만, 후대에 관련 자료를 남겨 성인의 경세를 고증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 앞의 논문, 2021, 5~7쪽.
- 7) 송찬식, 「洪範衍義 解題」, 『韓國學論叢』 5, 1983; 송정숙, 「大學衍義가 朝鮮朝 統治理念書 편찬에 미친 영향—中庸九經衍義와 洪範衍義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12집, 1996; 김홍수, 「『洪範衍義』의 편찬과 간행」, 『민족문화논총』 5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 8) 한형주, 「『홍범연의』에 보이는 국가제사」,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김성운, 「『洪範衍義』의 토지개혁론과 상업론—갈암 이현일의 경제사상과 그 성격」, 『퇴계학보』 119, 2006.
- 9) 최영성, 「『홍범연의(洪範衍義)』를 통해 본 存齋·葛庵의 학문」,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10) 정재훈, 「『홍범연의』와 제왕학」,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11) 김성운, 「『홍범연의』의 정치론과 경제개혁론 - 葛庵 李玄逸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영남남인의 실학적 경세서론」, 『대구사학』 83, 2006.; 이영호, 「『서경』 「홍범」 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 -이회일·이현일의 「홍범연의」 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2018; 금장태, 『경전과 시대』, 지식과 교양, 2012; 김낙진, 「『홍범연의』의 개혁사상」,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12) 김성운, 앞의 논문, 『퇴계학보』 119, 2006.; 한형주, 앞의 논문, 2018.

시했다는 점에서 시대성에 주목한 개혁인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3)</sup> 금장태는 이 책이 지닌 도학의 보수적 성격에 주목하기도 하였다.<sup>14)</sup>

『홍범연의』는 주로 경세서로 평가받았지만, 일부 내용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주역』의 시초점에 관한 상세한 해설이 수록된 「계의(稽疑)」는 실학의 경세를 표방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또 주자학의 심학적 경세를 강조하더라도 점법에 관한 상세한 고증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영호는 「계의」가 『홍범연의』의 후반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지적하면서, 도학이나 실학의 경세가 아니라 고대 점복적 경세의 부활을 시도한 저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sup>15)</sup> 또 이현일과 이휘일의 경세론을 주자학의 심학적 경세라고 명명하면서 『홍범연의』가 그들의 평소 견해(심학적 경세)와도 다른 존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16)</sup> 이 연구는 『홍범연의』의 서문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분석을 통해 성인의 경세 관련 기록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이른바 존고(存古)적 성격을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학적 경세서와 도학의 경세, 고대 점복적 경세의 회복 등 다양한 평가가 도출된 까닭은 『홍범연의』 전체 구성에 대한 고찰과 개별 장의 연구가 연구자에 따라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 점을 완전히 묵과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는 않았다.<sup>17)</sup>

논자의 문제의식은 이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홍범연의』의 존고적 성격을 부각한 이영호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점복적 경세의 전형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논자는 『홍범연의』가 철저하게 주자학적인 관점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점복적 경세의 요소가 주자학의 경세론 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주희의 견해이기도

13) 최영성, 앞의 논문, 2018, 36~37쪽.

14) 금장태, 앞의 책, 2012, 182~185쪽.

15) 이영호는 『홍범연의』가 정치경세서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점복 중심의 신학과 개인 수양, 자연학이 혼재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의문과 연구를 정리한 바 있다. 이영호, 앞의 논문, 2018, 112~113쪽.

16) 이영호, 앞의 논문, 2018, 124~130쪽.

17) 금장태, 앞의 책, 178~179쪽; 이영호, 앞의 논문, 2018, 111~112쪽.

하고, 천인의 관계에 근거한 『홍범연의』의 전체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홍범연의』의 구성이 주희의 관점에 충실함을 고증하고, 한당대 주석들을 통해 고대 성인의 경세를 고증하되 송대 학자의 견해를 활용하여 주자학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홍범연의』가 이휘일과 이현일 형제가 구축하고 영남 지식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주자학적 경세의 핵심을 정리한 저술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홍범연의』의 서문 등을 통해 존고적인 성격의 저술 의도를 살피고, 주자학적 관점이 반영된 전체 구성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홍범연의』 「계의」를 중심으로 주석에도 주자학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 2. 존고(存古)적 성격과 주자학적 구성

### 1) 존고(存古)적 성격

『홍범연의』는 흔히 『서경』 「홍범」의 주석서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인용된 자료를 보면 단순히 경문에 관한 해설을 목적으로 삼은 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경문의 내용을 인용한 사례도 있지만,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일부에 불과하다. 『홍범연의』는 경문의 해석 자체보다는 홍범구주의 핵심을 논하고 그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편찬 의도는 서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현일은 형 이휘일이 경세에 뜻을 두었다고 하면서, 형의 「홍범」 인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홍범」의 글은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는 모든 사물을 포괄하는 것이니, 실제로 몸을 닦아 부여받은 본래의 도리를 실천하고, 신을 섬기며 사람을 다스리고, 음양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천지의 도리를 조절하여 이룸에, 위대한 원칙과 방법이 들어 있는 곳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치는 답답하면서도 깊고, 맑은 꾸밈이 없으면서도 심오하여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채침(蔡沈)의 『서집전』은 문자를 따

라 뜻을 새기고 풀이해서 간단명료하다. 그러나 시설과 거기에 따르는 조목, 세부적인 규정, 그리고 상세한 수효에 관해서는 미처 언급하지 못했다. 경전을 훈석하는 체례가 그러하기 때문이다.<sup>18)</sup>

『홍범』의 내용은 천지 사이의 모든 사물을 포괄한다. 수신을 통해 도리를 실천하고, 신을 섬기고 사람을 다스리고 음양을 조화롭게 하는 일이 모두 ‘경세’에 해당한다. 즉 성인이 제시한 경세의 모범은 단순히 백성을 다스리는 행위와 제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천지 사이의 모든 일, 즉 천인(天人)의 일을 다스리고 관장할 수 있는 위대한 원칙과 방법[大經大法]이 곧 『홍범』인 셈이다.<sup>19)</sup> 홍범구주의 조목에 오행과 오기, 서징, 오복육극 등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요소들이 포함된 까닭은 『홍범』의 사유가 근본적으로 천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범』에 녹아있는 천인 관계의 사유는 『홍범연의』를 경세의 맥락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한다. 더구나 내용은 짧은 경문 속에 축약되어 있으므로 그 이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주희는 『서경』의 체계적인 주석을 남기지 못했고, 결국 제자인 채침에게 『서경』 주석의 편찬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주희의 명에 의해 찬집되고 후대에 공인받은 채침의 『서집전(書集傳)』조차 이휘일이 보기에는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서집전』의 권위와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채침이 경전을 훈석하는 일반적 체례에 따라 주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휘일의 저술목적은 이처럼 기존 주석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즉 경세의 세부적인 지침과 내용을 방대하게 정리하여 『서집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책을 지으려는 의도도 없었다.

18) 『洪範衍義』 「序」, “洪範之書, 包括盡盈天地間物事, 實修身踐形, 事神治人, 變理財成, 大經大法之所在. 顧其爲書, 淵深簡奧, 未易理會. 蔡氏集傳, 隨文訓解, 明白簡當, 而至於施設科條節文度數, 有不暇及, 釋經之例體則然矣.” 이 글에서 『홍범연의』의 번역과 원문의 표점은 기본적으로 『국역 홍범연의』를 따르되, 일부는 필자의 견해에 따라 수정하였다.

19) 김낙진, 앞의 논문, 2018, 54쪽.

이제 스스로 책을 짓거나 글을 쓰려는 의도는 아니다. 하지만 구주(九疇)의 목차에 따라 경(經)과 전(傳)에서 발췌해 내어 분류하고 편집하고, 조목조목 배열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그 뜻을 미루어 설명해서 보조하고 호위한다면, 애당초 책을 쓰려 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으면서 의지할 곳을 가지게 되니 도리어 좋지 않겠는가.<sup>20)</sup>

이휘일은 단지 경전의 뜻을 미루어 자세히 설명하여 참고하고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홍범연의』의 내용은 크게 경(經)과 전(傳)으로 구성되는데, 경(經)은 성인 시대를 서술한 삼경(三經), 『주례(周禮)』 『예기(禮記)』 등의 경서를 의미하며 전(傳)은 한당대의 주소와 송대 학자들의 견해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주석과 역사적 사례를 가리킨다. 이휘일이 저술의 의미를 스스로 낮춘 까닭은 당시 조선의 학자들이 대부분 도학의 실천을 목적으로 삼을 뿐, 말을 많이 하거나 글을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저술을 꼭 해야 한다면 자신이 직접 해설하기보다는 기존 자료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sup>21)</sup>

요약해보면 『홍범연의』는 기본적으로 채침의 『서집전』에 나온 경전 해석을 인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항목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방대한 분량의 주소를 수록하여 존고(存古)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까닭은 바로 이러한 이휘일의 저술 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휘일과 이현일이 새로운 경세의 원칙을 수립하거나 고대 경세론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주자학의 전통과 관점을 계승하면서, 그 속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려는 동기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현일 역시 이 책의 내용 구성과 편집에 관하여 중요한 단서를 언급하고 있다.

20) 『洪範衍義』 『序』 “今雖不敢自附於論著撰述之意，然若因九疇之目，採摭經傳，類纂彙集，條陳蘊析，推演其義，以羽翼輿衛之，則初無著書之嫌，而得有據依之地，顧不韙歟。”

21) 이는 17세기 지식인들의 저술 방식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자신의 견해나 해석을 배제한 채 거의 자료의 인용으로만 채워진 저술이 많은 까닭은 저술 행위를 꺼리거나 경계했던 당시 주자학자들의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박세채는 이러한 저술 경향을 스스로 ‘유초(類抄)의 학(學)’이라고 불렀다. 『범학전편』의 구성과 박세채의 저술 경향 등에 대해서는 즐고, 앞의 논문, 2021, 2장을 참고 바람.

이에 옛 전적들을 널리 참고하고 두루 채집하며, 참작하고 취사 선택하여 체제를 잡고 편집하였으니, 『오행』·『오사』·『팔정』과 같은 범주는 대개 형님께서 친히 모아 기록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 이외의 여섯 가지 범주도 모두 조목과 순서를 짜두었으나 모아서 책을 만드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불행히도 중도에 병환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sup>22)</sup>

『오행』, 『오사』, 『팔정』은 자료의 수집과 구성까지 이휘일이 작업한 것을 토대로 삼았지만, 나머지 장들은 대략의 열개만 짜두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 구성은 후대의 몫으로 남겨두었다는 뜻이다. 즉 『홍범연의』의 전반부 가운데 홍범구주의 세 번째 주인 『팔정』까지는 이휘일의 밑그림과 기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편집되었고 나머지는 이현일이 우선 완성한 뒤 그 후손들이 증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책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범례가 없고, 각 장에 머리말만 첨부한 이유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sup>23)</sup>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서문과 홍범구주의 항목을 제목으로 삼은 각 장 외에 『홍범연의변(洪範衍義辯)』과 『홍범총론(洪範總論)』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범연의변』은 내용이 지나치게 번쇄하다는 비판에 관한 이현일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수주관규록(愁州管窺錄)』에도 수록되어 있다.<sup>24)</sup> 이 글은 후대에 『홍범연의』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도 내용 편집의 기준을 대략 알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주공(周公)은 『주례』를 지으면서 단지 예(禮)의 조목만을 나열했을 뿐 그 규정들을 모두 전하지는 않았다. 정현(鄭玄)의 주(註)와 가공언(賈公彥)의 소(疏)에서

22) 『洪範衍義』 「序」 “於是廣求博采，參酌去就，定其篇目，節次編類，若五行五事八政等疇，蓋經手自纂錄，其餘六疇，亦皆有指擬條序，而未及稟稔成書，不幸中罹疾病，有志未就。”

23) 기존 연구에 따르면 『홍범연의』는 판본에 따라 13권본부터 28권본까지 서지사항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이현일에 의해 한 차례 완성된 이후에도 긴 시간에 걸쳐 수정되고 증보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홍범연의』의 편찬 과정과 여러 판본의 상세한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김홍수, 앞의 논문, 2014, 43~48쪽 참고.

24) 『葛庵集』 권19 「雜著」에 수록된 『수주관규록』에는 이외에도 『주역』을 복서를 위한 책이라고 보았던 주희의 말에 의문을 품었던 호안국의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고, 장현광, 조익, 이수광의 학설이나 『심경부주』 등의 내용 가운데 의문점에 대한 견해도 수록되어있다.

도 또한 그 실제 일에 적용하는 방법[致用之方]을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다. 주자가 예서(禮書)를 모아 편집하면서 조목에 따라 모아 기록하고 그 뜻을 알기 쉽게 덧붙였다. 예를 들면 「종률(鐘律)」<sup>25)</sup>은 『당개원십이시보(唐開元十二詩譜)』<sup>26)</sup>와 채원정(蔡元定)의 『율러신서(律呂新書)』로 보완하였으며, 「사전(師田)」<sup>27)</sup>은 『풍후악기(風后握機)』<sup>28)</sup>의 글과 무후(武侯)<sup>29)</sup>의 육십사진(六十四陣)의 그림을 이용하여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 것과 같은 것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 밖에도 광범위하게 문헌들을 찾아서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을 모은 것이 한둘이 아니고 상당히 많다. 아마도 이처럼 하지 않으면, 사물의 이치를 모두 꿰뚫어 보고 천하의 일들을 성취하지[開物成務] 못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sup>30)</sup>

이현일은 『주례』를 예로 들면서, 정현의 주와 가공언의 소에도 그 실제 적용 방법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주희가 『의례경전통해』와 같은 저술을 통해 조목에 따라 그 뜻을 상세하게 덧붙였다고 보았다. 즉 이현일이 『홍범연의』에서 편집의 모범으로 삼은 것은 주희의 『의례경전통해』라고 할 수 있다. 『의례경전통해』에서는 「종률(鐘律)」과 「사전(師田)」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세하지 않은 내용에 관한 주석으로 광범위한 문헌을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범연의』는 이를 모범으로 삼아 범위를 홍범구주로 한정하고, 구주와 관련된 경서의 기록과 다양한 주석을 최대한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일에 적용하는 방법[致用之

25) 「종률(鐘律)」: 『儀禮經傳通解』 권13에 수록되어 있다.

26) 『개원십이시보(開元十二詩譜)』: 원(元)나라 옹봉래(熊朋來)가 지은 책으로, 채원정의 『율러신서』와 함께 주희가 「종률」의 저술에 참고한 문헌 가운데 하나이다.

27) 「사전(師田)」: 『儀禮經傳通解』 권36에 수록되어 있다.

28) 『풍후악기(風后握機)』: 중국 고대의 진법서로서, 황제(黃帝)의 신하인 풍후(風后)가 지었다고 전하지만 언제 누가 지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29) 무후(武侯): 제갈량(諸葛亮, 181~234)을 가리킨다. 자는 공명(孔明), 호는 와룡(臥龍)이다. 시호는 충무후(忠武侯)이다.

30) 『洪範衍義』 「洪範衍義辯」 “周公之作周禮，只列禮之條目，其法皆不傳。鄭註賈疏，亦不明言其致用之方。朱子之衷集禮書也，逐條纂錄以演其義，如鐘律則補之以開元樂譜蔡元定律書，如師田則演之以風后握機文武侯六十四陣圖。至他旁搜曲取，以類相從者，不一而足。蓋以爲不如是，不足以開物成務也。”

方]”이라는 말이다. 이는 당장 시급한 현실 제도개혁에 필요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례』와 『서경』 등 경문에 나타난 핵심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역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치용(致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지, 당장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해야 할 사례를 모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용문 뒤에 다시 『대학연의』, 『대학연의보』의 사례를 든 이유도 마찬가지다. 방대한 주석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이나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경문의 핵심 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례를 수록하여, 후세의 참고를 돕기 위해 제시된 것들이다.

편집 시기와 편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홍범총론』도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는 동정(董鼎, ?~?),<sup>31)</sup> 진덕수(陳德秀, 1178~1235)의 견해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희의 견해로 채워져 있다. 내용의 출전은 모두 『서전대전』에 인용된 협주(夾註)와 『주자어류』에 수록된 주희의 견해이다.<sup>32)</sup> 『홍범총론』은 『홍범연의』가 주희의 관점을 철저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범연의』는 새로운 견해를 드러내거나 실학적 경제학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서집전』의 부족한 부분, 즉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의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주석은 『서경』, 『주례』, 『예기』에 대한 정현의 주석과 공영달의 소 등 한당대의 주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홍범연의』의 성격을 존고(存古)적이라고 했던 기존 연구의 평가는 분명 타당하다.

다만, 논자는 주소의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여 후대에 전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석에는 한당대의 주소뿐 아니라 주희를 비롯한 송대 학

31) 동정(董鼎): 원대 학자이며 자는 계형(季亨)이고, 호는 심산(深山)이다. 저술로 『효경대의(孝經大義)』가 있다.

32) 『홍범총론』의 내용 가운데 처음으로 제시된 주희의 견해는 『서전대전(書傳大全)』 권6의 협주를 인용한 것인데, 사실 주희가 아니라 잠실진씨(潛室陳氏) 진식(陳植)의 견해이다. 이는 『서전대전』 편집 당시의 오류로 파악된다. 『서전대전』을 통해 『서경』을 이해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이 말을 주희의 견해로 보았던 것 같다. 진식은 홍범구주를 해설하면서 낙서의 9수와 목화토금수의 오행을 연결하고, 이것들을 구주의 각 조목과 짝지어 논하였다. 주희는 낙서와 『홍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하였지만, 진식처럼 낙서의 수-오행-구주의 관계를 상세히 논하지는 않았다. 『四庫全書』 수록 진식의 『목종집(木鍾集)』 권3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의 견해를 적소에 배치하여 주자학의 관점에서 『홍범』을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홍범연의』는 한당대의 주소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존고(存古)적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주자학의 관점에서 『홍범』을 독해하려는 구성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 2) 주자학적 관점을 반영한 구성

『홍범연의』의 구성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이다. 범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편집의 방향과 의도를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에서 자료를 인용하는 일관적인 형식은 추려낼 수 있다. 이는 대략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머리말 뒤에 고대의 경(經)을 우선 제시하는 것이다. 『주역』, 『시경』, 『서경』, 『주례』 『예기』가 대표적인데, 성인의 행동과 말을 다룰 때는 『논어』와 『맹자』를 활용하기도 한다. 모두 성인의 시대를 직접 다룬 경서의 내용이다.

둘째는 정현의 주석과 가공언, 공영달의 소 등 한당대의 주소를 전(傳)으로 인용하였다는 점이다. 주소의 적극적인 인용은 한당대 경학의 주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홍범연의』에서 이 주석들은 경세의 상세한 고증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하거나 후세에 전달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이현일은 『홍범연의변』에서 주소의 내용에 대해 치용(致用)의 방도를 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주소의 뒤에는 주희의 견해 혹은 송대 학자의 견해를 배치한 경우가 많다. 이는 한당대 경학 해석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면서 주자학의 관점을 따르고자 한 것으로,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다. 한당대의 주소와 송대 학자의 견해를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은 『홍범연의』 편집의 방향과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며, 앞서 이현일이 『홍범연의변』에서도 말했듯이 주희가 『의례경전통해』에서 보여준 고증 방식을 살린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홍범연의』의 내용 구성에 반영된 주자학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도 언급했듯이 『홍범연의』에는 범례가 따로 있지 않아 편집의 의

도나 주석의 선정 방식 등을 직접 알기 어렵다. 하지만 단서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각 장 서두에 배치된 머리말이다. 머리말에는 기본적인 편집 방향과 수록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해당 장의 내용과 구성을 파악해볼 수 있다.

둘째는 핵심을 요약한 소결에 해당하는 문구의 존재다. 『홍범연의』는 내용이 매우 방대한 탓에 전체를 일일이 고찰하기 어렵지만, 다행히도 각 장의 내용 중간에 ‘以上’ ‘右’로 시작되는 소결에 해당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홍범연의』 전체 구성과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sup>33)</sup>

『홍범연의』 각 장의 주제와 핵심 내용

卷	구주	주제	핵심 내용
1	五行	論五行之質, 有定體而效其功用. 論五行之氣, 播於四時而爲流行.	오행을 質과 氣로 구분하고, 이를 體用과 流行의 관점에서 이해함.
2	<b>五事</b>	叙五事之用 五事通論 <b>論敬爲五事之主</b>	오사, 모언시청사(貌言視聽思)에 대한 각론 오사에 대한 통론 <b>敬을 五事の 핵심으로 제시</b>
3	八政-食	論劬農作貢之法 論時使節用之道 論廣儲蓄 論備災救荒之要 論興水利	農用을 중심으로 농사 관련 내용을 정리 절용의 방법 가축을 기를 재이를 대비하고 구황하는 핵심 수리
4	八政-貨	論造幣 論通有無權輕重 論斂貨 論節儉 論抑未利 論不與民爭利	재화를 관리하는 방법
5~ 12	八政 -祀	祭法總要(5) 天神之祀(6) 地示之祀(7) 百神之祀(8) 宗廟之祀(9) 因事之祭(10) 大夫士饋食饋尸之禮(11) 總論祭祀之義(12)	제사 방법의 기본 원칙 각종 제사 정리 제사의 의미에 대한 총론

33) 가독성과 논의의 편의상 각 문장 앞에 있는 ‘以上’ ‘又’는 생략하였다.

13	八政 -司空上	論均田定居之法 明戶口民數之法 總論制國居民之法 明分土封建之制	토지-호구 제도 등을 논함
14	八政 -司空下	宮室之制 器服度量之制	궁실의 운영과 기물, 복제 도량형
15	八政 -司徒上	學制 學義 明倫	학문 제도와 인륜과의 관계
16	八政 -司徒下	敎學通法	교학의 원칙과 방법
17	八政 -司寇	典刑 設禁 飭憲 聽訟 議辟 司民 和難 有司 慎刑 明辟	각종 법제와 원칙
18	八政 -賓上	士相見禮 諸侯相朝禮 朝見總紀 覲禮	빈객을 대하고 조회하는 예제
19	八政 -賓下	聘禮	빙례
20	八政 -師上	軍制 敎閱 戰陳	군제와 전술
21	八政 -師下	軍禮 軍令 將道 征伐 城池 禦夷狄 車戰	군령과 정벌, 전투
22	五紀	曆法 日月星辰 二十八宿 水火金土木五星爲緯 明日月所會爲辰之義	천문과 역법

23 24	皇極上下	敘二帝三王繼天立極之道 明王者建極出治之道 天子之禮 王者內治之法 建儲輔養之法 明天子尊師重道之義 明天子視學養老之義 論設官 論建侯 省方考制之義 名器	성인이 계천입극을 하는 도(道) 왕이 극을 세우고 정치를 행하는 도(道) 천자의 예법 왕의 다스림 관직을 세우고 제후를 세우는 원칙 등
25	三德	高明柔克 作福作威玉食 三德總論	고명유극(高明柔克)을 다스림 복/위엄/맛있는 음식을 가려 씹 삼덕을 총론함
26	稽疑	卜筮總紀 明蓍策 考變占	거북점과 시초의 근본 고증 시초점에 대한 고찰
27	庶徵	休徵 咎徵 庶徵總論	군주의 정치에 대한 자연의 반응 휴징(休徵)과 구징(咎徵) 총론
28	五福六極	오복육극의 해석이 천인 중심으로 일 반 백성까지 반영되어 있음을 논함	천인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백성을 향한 이 상적 정치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

겉보기에는 「팔정」의 각 조목에 관한 방대한 주석이 가장 눈에 띈다. 하지만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홍범언의』의 구성에 주희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황극」의 내용 구성이다.<sup>34)</sup> 내용 대부분은 각종 예법과 관직을 세우는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지만, 서두에서 황극을 성인이 ‘계천입극(繼天立極)’하는 과정 혹은 군주가 표준을 세우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희의 견해를 취했기 때문이다.<sup>35)</sup> 『주자어류』에 기록된 주희의 홍범구주 이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 이 글에서는 『홍범언의』 「황극」의 구성이 주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며, 「황극」 전반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송치욱, 『홍범언의(洪範衍義)의 사상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황극皇極」편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50, 한국국학진흥원, 2023을 참고 바람.

35) 『홍범언의』에서 조목을 ‘繼天立極’과 ‘建極出治’를 나눈 까닭은 二帝三王으로 대표되는 성인의 시대와 이후 왕들의 통치 시기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建極出治’에서는 공자를 내세워 『中庸』의 九經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성인의 시대 이후 통치자들이 실현해야 할 정치적 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무릇 (낙서의) 수에서 1부터 5까지는 5가 가운데 있고, 9에서 5까지 5도 또한 가운데 있다. 9를 이고 1을 밝으며, 3을 왼쪽에 두고 7을 오른쪽에 둬도 5가 가운데 있다. 예컨대 앞의 네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극(極)을 세울 수 있으니, 첫째 오행(五行) 둘째 오사(五事), 셋째 팔정(八政), 넷째 오기(五紀)가 이것이다. 뒤의 네 가지(삼덕-계의-서징-오복육극)는 또한 황극(皇極)에서 나온다.<sup>36)</sup>

주희는 낙서의 숫자 배치에 근거하여 5가 중심에 있음에 주목하여 5 황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황극을 앞의 오행-오사-팔정-오기의 네 주가 성립한 뒤에 군주(皇)가 표준(極)을 세우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인데, 이렇게 보면 뒤의 나머지 4개 주는 황극의 정치 행위로부터 파생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주희의 황극 해석은 기존 주석에서 황극을 단지 ‘대중(大中)’으로 풀이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황극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낙서의 9수에서 5는 가운데 머물고, 홍범구주에서 황극은 5에 머문다. 그러므로 공안국의 전(傳)에서 황극을 대중(大中)이라고 한 후에, 제유는 모두 그(공안국)의 설을 조술하였다. 내가 홀로 일찍이 경문의 의미와 말의 맥락으로 뜻을 탐구하였는데, 꼭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황은 군주를 칭하고, 극은 지극하다는 뜻이며 표준을 이른다. 항상 만물의 중앙에 있으면서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고서 바름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을 가운데에 있는 표준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곧바로 극을 ‘가운데’라고 풀어서는 안 된다.<sup>37)</sup>

주희는 공안국을 비롯한 한대 『홍범』 해석에서 황극을 대중으로 풀이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중(大中)이라는 풀이가 주는 애매함과 경문 해석의 자의적 성격 때문이다.<sup>38)</sup> 공영달은 황극을 단지 “하늘에 따

36) 『朱子語類』 권79, “凡數自一至五五在中, 自九至五, 五亦在中. 戴九履一, 左三右七, 五亦在中. 又曰, 若有前四者, 則方可以建極. 一五行二五事三八政四五紀是也. 後四者, 却自皇極中出.”

37) 『晦庵集』 卷72 『皇極辨』 “洛書九數而五居中, 洪範九疇而皇極居五, 故自孔氏傳訓皇極為大中而諸儒皆祖其說. 余獨嘗以經之文義語脈求之, 而有以知其必不然也. 蓋皇者, 君之稱也, 極者, 至極之義. 標準之名, 常在物之中央而四外望之, 以取正焉者也. 故以極為在中之準的則可, 而便訓極為中則不可.”

라 정사를 펼치면 대중(大中)을 얻을 수 있다.”라고만 풀이하었는데,<sup>39)</sup> 여기서 대중이란 단지 군주가 구주의 운용에서 취해야 할 중정(中正)의 도리라는 의미에 불과하였다. 주희는 5 황극을 군주가 극(표준)을 세우는 과정으로 보아,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황극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펼친 『황극변』은 『홍범연의』 『황극』의 서두에 강령처럼 걸려있는데, 이는 전(傳)에 해당함에도 『서경』의 경문보다도 앞에 배치되어 있다. 『황극』의 주석 구성은 이처럼 주희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오복육극』의 머리말에도 주희의 황극 이해를 반영한 서술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무릇 오행에 순응하고 오사를 삼가며 팔정을 후하게 하고 오기에 화합함은 곧 극(極)을 세우는 것이다. 삼덕에서는 앞의 네 가지를 저울질하고, 계의에서는 의문을 결단하며, 서징에서는 징협하며, 오복과 육극에서는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니, 또한 황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sup>40)</sup>

군주가 극을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앞의 4주와 뒤의 4주를 구분하면서 ‘所以建極’과 ‘自皇極中出’을 구분한 것은 『홍범연의』의 홍범구주 이해가 주희의 관점에 기초하여 세워져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앞의 4주는 군주가 극을 세우는 전제조건이 되고 뒤의 4주는 군주가 극을 세운 뒤에 이뤄지는 정치적인 행위와 결과에 관한 각종 징협을 가리키게 된다. 이는 친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앞서 살폈듯이 주희의 견해이면서 기존 한당대 『홍범』 해석에는 없었던 관점이다.<sup>41)</sup> 주희의 황극 해석은 후대에 채침의 『서집전』에 반영되어 주자학 『홍범』 이해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sup>42)</sup> 『홍범연의』 『황극』

38) 『朱子語類』 권79, “今人說中, 只是含糊依違, 善不必盡賞, 惡不必盡罰. 如此, 豈得謂之中.”

39) 『尙書正義』 卷11, “順天布政, 則得大中. 故皇極爲五也”

40) 『洪範衍義』 『五福六極』 “蓋順五行, 敬五事, 厚八政, 叶五紀, 乃所以建極. 至於三德以權之, 稽疑以決之, 庶徵以驗之, 福極以勸懲之, 却自皇極中出.”

41) 『황극변』에 보이는 황극 해석은 주희의 완전한 독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황(皇)을 군주로 이해하고, 극(極)을 표준의 의미로 이해하는 방식은 주희보다 앞서 증공(曾鞏)의 견해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희는 당시 통용되던 ‘大中’이라는 해석을 비판하고 증공을 비롯한 학자들의 견해에 찬성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吳震, 『宋代政治思想史上的“皇極”解釋—以朱熹《皇極辨》爲中心』, 『퇴계학논집』 12, 영남퇴계학연구원, 2013, 203~208쪽.

은 이처럼 주희의 황극 해석 관점에 따라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다.

「황극」 외에 「오사」도 마찬가지다. 「오사」는 성인인 공자의 행동을 주제로 삼고 있으므로, 『논어』의 내용을 앞세우고 『맹자』를 언급하여 성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이러한 편집 방식은 성인의 시대에 가장 근접한 자료를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주석을 첨부하고자 한 결과이다. 하지만 주석의 마무리는 역시 송대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경(敬)을 오사의 핵심으로 파악한다는 결론부의 내용은 「오사」에도 주자학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심학적 경세의 일면을 보여준다. 경(敬)을 실천한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한 뒤에 덧붙인 송대 이후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 ① 서건(徐幹)의 「법상론(法象論)」, 진덕수의 주석[「법상」 한 편은 오로지 경(敬)을 위주로 한 것이다. 진秦·한漢 이후 유자儒者의 논저들 가운데 이것에 미칠 수 있는 것이 드물다.]
- ② 주희의 「경재잡(敬齋箴)」
- ③ 경(敬)이 오사(五事)의 주(主)가 된다는 진덕수의 말

한당대의 주석에서 경용오사(敬用五事)는 군주의 몸가짐과 행위에 대한 경계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경(敬) 개념 자체에 대한 주목은 아직 없었다. 「홍범」의 해석에서 경(敬) 개념을 통해 오사를 통섭하는 형태로 이해한 것은 송대 이후의 일인데, 이는 경(敬)을 통해 심(心)과 일상의 모든 행동을 수렴하고자 했던[其心收斂不容一物] 주희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 특히 진덕수의 말은 「오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는 『심경(心經)』의 저자이면서 주희를 계승하여 경(敬)을 강조한 학자이기도 하다. 16세기 이후 『심경부주』가 조선시대 사상 전반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현일이 경(敬)을 오사(五事)의 핵심으로 논한 진덕수의 말을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42) 조선에서는 권근이 일찍이 「洪範九疇天人合一之圖」 위에서 주희와 체첩의 견해를 도상의 형태로 구현하기도 하였다. 줄고, 앞의 논문, 2021, 3장 참고.

라고도 볼 수 있다.

주희는 직접 『서경』 관련 주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문집과 『주자어류』 등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고, 『서전대전』과 『성리대전』 등에 인용되어 있다. 『홍범연의』는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주희의 견해를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송대의 학자들이나 주희의 후학인 채침, 황간, 진덕수 등의 말을 인용하여 보충하였다. 「오행」, 「오사」의 구성은 모두 이러한 기준에 충실한 편이다.

분량이 가장 많은 「팔정(八政)」의 구성은 고증적인 성격에 가장 충실하다. 「팔정」은 이름 그대로 8개 조목으로 이뤄진 구주 가운데 3주인 팔정을 무려 53개의 부분으로 세분하여 고증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주희의 견해나 송대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방대한 고증은 「팔정」을 중시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집전』 등 「홍범」에 관한 기존 주석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휘일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팔정」 외 다른 편은 대체로 주희의 견해가 기준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현일이 주희의 『의례경전통해』를 모범으로 삼아 편집을 주도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 3. 주자학적 관점을 반영한 주석 - 「계의(稽疑)」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주석에 주자학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례를 「계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고찰하였듯이 『홍범연의』는 성인의 시대에 해당하는 경(經)를 우선 배치하고 한당대의 주소와 송대 학자의 견해를 전(傳)으로 활용하였다. 송대 학자들의 견해와 역사적 사례는 한당대 주석의 뒤에 배치하고 있다. 인용된 주석 중에는 송대 학자의 견해, 특히 주희의 견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주석들은 한당대 주석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다. 『홍범연의』 안에서 주자학적 관점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계의」에서 찾을

수 있다.

『홍범연의』 「계의」는 기존 연구의 지적대로 홍범구주의 후반부, 즉 군주가 표준을 세운 뒤에 행하는 경세 과정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다.<sup>43)</sup> 분량이 많은 이유는 그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참고 자료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8주와 9주에 해당하는 「서징」 「오복육극」의 주석이 소략한 까닭은 「황극」이나 「팔징」 등과 중복되어 생략한 탓도 있다. 「계의」에 인용된 자료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홍범연의』 「계의」의 구성과 인용 자료

	구성	인용 자료	비고
1	머리말		이현일(추정)
2	卜筮總紀	『周禮』 『朱子語類』	
3	明著策	朱熹 『周易本義』 「筮儀」 朱熹 『易學啟蒙』 「明著策」	
4	考變占	朱熹 『周易本義』 朱熹 『易學啟蒙』 「考變占」 朱熹 「明筮贊」 朱熹 「述旨贊」	「明筮贊」과 「述旨贊」은 『周易傳義大全』에 수록

이처럼 「계의」의 구성은 다른 장에 비하여 매우 단순하다. 앞부분에 있는 『주례』 인용을 제외하면 주희의 견해만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의」의 내용은 모두 점서(占筮)에 관한 것인데, 「주례」를 인용하여 점서의 기본적인 정의를 내린 뒤, 주희의 『역학계몽』과 『주역본의』를 인용하여 시초점의 과정과 원리를 서술하고 있다. 즉 「계의」는 다른 편들과 달리 서두에 인용한 『주례』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주희의 견해로만 채워져 있는 셈이다. 심지어 『서경』 「홍범」의 경문도 전혀 인용하지 않았는데, 머리말은 여기에 나름의 사정이 있음을 알려준다.

43) 이영호, 앞의 논문, 2018, 112쪽.

주자의 『의례정전통해』 「왕조례(王朝禮)」 가운데 「복서(卜筮)」편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빠져 있으니 참으로 두고두고 한스러울 일이다. 점을 치는 법은 이제 상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례』의 대종백(大宗伯)을 비롯해 대복(大卜), 복인(卜人) 등의 직책에 대략 그 설이 실려 있다. 이제 그것을 뽑아서 책머리에 덧붙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자가 편집한 「서의(筮儀)」와 「명시(明著)」 및 「고변(考變)」 등의 글을 취해서 이 편으로 삼는다.<sup>44)</sup>

「계의」의 분량이 황극 이후 4개 주 가운데서도 많은 까닭은 『주역』의 시초점을 운용하는 과정과 원리를 상세하게 보여주고자 했으나 마땅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일 뿐, 단순히 중요도 때문은 아닌듯하다. 한당대 주소에도 시초점 자체를 상세하게 고증한 사례는 없기에 「계의」의 주석은 부득이 『역학계몽』 등에 수록된 주희의 견해에 의존해야만 했다.

『홍범』에 내재한 천인 관계의 사유는 한대 경학뿐 아니라 주희의 『홍범』 해석에도 적용된다. 다만 주희의 관점은 인간과 천의 단순한 감응을 주장하거나 한대 역학의 재이론이나 술수적 관점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니었다. 『역학계몽』의 「명시책」과 「고변점」은 대연지수 50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초점의 운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속에 녹아있는 보편적인 역리(易理)를 드러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5)</sup>

주희는 천과 군주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했던 한대의 방식을 경계하였고,<sup>46)</sup> 대신 시초점을 펼치는 과정에 내재한 보편적인 역리(易理)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50개의 시초는 대연지수 50을 상징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빼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극을 의미한다. 시초를 둘로 나누는 것은 양의(兩儀)에 해당하고, 이후 시초를 헤아리는 과정은 천지인 삼재(三才), 윤

44) 『洪範衍義』 「稽疑」 “朱子儀禮經傳王朝禮中有卜筮篇，而闕其文，誠爲千古之恨。卜法今無所考，而周禮大宗伯大卜卜人等職，略載其說，今取之以冠篇首，次取朱子所輯筮儀明著考變等書以爲此篇云。”

45) 주광호는 주희의 시초점 이해를 “『주역』 전체를 관통하는 역리(易理)의 인정과 그 역리가 현상세계 및 우주 운행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에 대한 인정”이라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주광호, 『역학과 주자학-역학은 어떻게 주자학을 만들었는가?』, 예문서원, 2020, 267쪽 참조.

46) 『朱子語類』 卷79, “漢儒也穿鑿。如五事，一事錯，則皆錯，如何卻云聽之不聽，則某事應。貌之不恭，則某事應。”

년(閏年), 괘변(卦變)을 반영한다는 것이다.<sup>47)</sup> 이현일은 주희의 견해를 수록하여 계의가 단순히 점복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역학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천(天)에 묻고 다시 천(天)이 인간에게 조용하여 답하는 과정임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주희의 견해에 가장 충실한 형태의 전(傳)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홍범구주의 운용 과정으로 보더라도 계의는 인간이 점법을 통해 직접 묻고 하늘로부터 답을 듣는 과정<sup>48)</sup>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계의는 계천입극(繼天立極)의 주체인 군주가 삼덕으로 다스림을 실행한 뒤에 의심나는 부분을 하늘에 직접 묻고 하늘의 대답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천인 관계의 맥락에서 홍범구주를 이해한 주희의 관점에서 볼 때 「계의」의 점복적 요소는 「오사」나 「황극」에서 강조되는 심학적 요소와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사(五事)를 경용(敬用)하고 군주가 극을 세우며 계의(稽疑)를 명용(明用)하는 것은 성인의 홍범구주 운용에서 당연히 경유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희는 점복의 내용을 재이나 술수에 의지하지 않고 역리(易理)적 요소로 전환하여 설명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당시 계의(稽疑)의 점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는 정말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채침이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에서 『주역』의 64괘와 상응하는 「홍범」의 81 범수(範數)를 도상의 형태로 만들고 역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점법 체계를 서술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81범수'로 칭하는 도상은 64괘처럼 사시(四時)의 운행과 인간사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채침이 근거한 역학적 원리는 곧 하락학(河洛學)의 사유를 가리킨다.<sup>49)</sup> 그에 따르면 하도와 낙서로부터 각각 『주역』과 「홍범」이 나왔는데, 이들은 모

47) 『洪範衍義』 「稽疑」 “大衍之數五十，而著一根百莖，可當大衍之數者二，故揲著之法，取五十莖爲一握，置其不用以象太極，而其當用之策凡四十有九。蓋兩儀體具而未分之象也…著凡四十有九，信手中分，各置一手，以象兩儀，而掛右手一策於左手小指之間，以象三才。遂以四揲左手之策，以象四時，而歸其餘數於左手第四指間，以象閏。又以四揲右手之策，而再歸其餘數於左手第三指間，以象再閏。是謂一變。其掛扚之數，不五即九。”

48) 채침 역시 계의를 천인이 조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書集傳』 「洪範」 “稽疑者，以人而聽於天也。”

49) 하락학(河洛學)이란 하도와 낙서와 관련된 학문을 말하며, '도서역학(圖書易學)' '도서학(圖書學)' 이라고도 한다. 모두 하도와 낙서, 『주역』과 「홍범」의 상관관계를 주로 논하며, 이들이 하나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희는 『역학계몽』 「본도서」에서 하락학의 사유를 논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졸고, 앞의 논문, 2021, 47~54쪽 참고 바람.

두 하나의 원리로 일관되며 씨줄과 날줄의 관계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하락학의 사유는 송대 유목(劉牧)이 발전시켰고, 채원정(蔡元定, 1135~1198)과 주희가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역학적 사유의 하나이다. 주희는 『역학계몽』 『본도서(本圖書)』에서 짚막하게 하락학의 사유를 언급하였을 뿐, 낙서와 『홍범』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채침은 주희의 역학을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낙서-『홍범』으로 이어지는 리수(理數)의 원리를 상세히 논하고자 하였다.

채침은 하도의 10수와 낙서의 9수가 서로 통하고, 『주역』 64괘와 『홍범』 81수(數)의 원리가 모두 서로 통한다고 보았다. 또 하도와 낙서는 모두 복희와 우임금이라는 성인에게서 유래하였지만, 하도에서 유래한 『주역』만이 여러 성인을 거쳐 온전한 체계를 구축하였고, 낙서의 9수에서 유래한 『홍범』의 원리는 기자 이후 전승이 끊어졌다고 보았다. 그래서 채침 자신이 부득이 그 원리를 서술하고 점법의 체계를 세웠는데,<sup>50)</sup> 이 책이 바로 『홍범황극내편』이다.

채침이 창안한 점법 체계는 후대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주희의 제자로서 성인의 도통을 이어받았다고 보면서 채침을 옹호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점법 체계의 인위적 성격과 양응의 『태현(太玄)』 사마광의 『잠허(潛虛)』 등과의 유사성을 거론하면서 부정하는 사례도 있었다.<sup>51)</sup> 게다가 이 책은 미완성 상태로 전해져 명대 학자들이 다시 보완한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sup>52)</sup>

『홍범황극내편』은 『성리대전』에 수록되어 15세기에 조선으로 전해졌는데,

50) 『洪範皇極內篇』 「序」 “易更四聖而象已著，範錫神禹而數不傳。後之作者昧象數之原，室變通之妙，或積象以爲數，或反數而擬象。”

51) 특히 『통극』과 『잠허』는 『홍범황극내편』 「서문」에도 언급되는데, 채침은 이들이 수를 잘못 이해하고 건강부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洪範皇極內篇』 「序」 “洞極用書，潛虛用圖，非無作也，而牽合傳會，自然之數益晦蝕焉。” 또 『太玄』 『潛虛』와의 유사성은 『四庫全書總目提要』 『洪範皇極內篇』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 “大意以太元元包潛虛，既已擬易，不足以見新奇變幻，其說歸之洪範，實則朝三暮四朝四暮三，同一僭經而已矣。”

52) 81 범수에 관한 해설 자체가 처음부터 미완성 상태로 전해졌고, 명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보완과 해설이 이루어졌다. 명대 응종립(熊宗立, 1409~1482)의 『홍범구주수해(洪範九疇數解)』, 『新刊性理大全』에 수록된 장품(章品)의 보주(補註), 한방기의 『홍범도해(洪範圖解)』가 대표적이며, 이들을 ‘연범(衍範) 일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내용은 즐고, 앞의 논문, 2021, 5장을 참고 바람.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는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sup>53)</sup> 이 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최초의 주해서인 이순의 『홍범황극내편보해(洪範皇極內篇補解)』를 시작으로, 신흘(申欽)과 장유(張維), 신최(申最) 등에게서 연구의 흔적이 나타난다.<sup>54)</sup> 17세기의 인물로는 『범학전편(範學全篇)』을 편찬한 박세채가 대표적이다. 박세채는 채침을 도통의 중심에 두면서 주희와 더불어 우임금과 기자 이래 끊어진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로 평가하였다.<sup>55)</sup> 그래서 『범학전편』에 『홍범황극내편』 전문을 수록하였고, 「낙서」의 수와 「홍범」의 의리를 결합한 저술로 이해하였다. 박세채는 채침이 미완성한 점법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순의 『홍범황극내편보해』와 명대 학자의 저술까지 망라하여 『홍범황극내편』에 관한 방대한 주석서를 만들었다.

둘째는 제한적인 활용인데, 『홍범연의』가 대표적이다. 『홍범연의』에서 『홍범황극내편』 활용은 오행(五行)을 설명할 때만 나타난다. 이현일은 이처럼 『홍범황극내편』의 존재를 알았고, 『홍범연의』에 「오행」의 주석으로 인용하면서도, 채침이 서술한 낙서-「홍범」의 원리나 점법은 전혀 인용하지 않고 오로지 주희가 서술한 점법 고증만을 인용하였다. 즉 이현일은 채침의 도통적인 위상이나 『서집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적어도 점법에 있어서는 채침의 견해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주희를 중심으로 「계의」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람은 모두 채침이 『서집전』에서 의리를 풀어내고 『홍범황극내편』에서 수와 점법을 밝혔음을 인정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박세채가 채침을 우임금-기자에서 끊

53) 조선시대 『성리대전』의 수용과 『홍범황극내편』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줄고, 「낙저 이주철 「신증황극내편(新增皇極內篇)」의 특성과 가치-조선시대 『홍범황극내편』 연구사의 맥락에서, 『민족문화논총』 8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를 참고 바람.

54) 이순을 비롯한 조선 시대 인물들의 『홍범황극내편』 연구에 관한 논의는 이선경, 「조선 전기 상수역학연구 『홍범황극내편』의 수용과 이해-이순(李純)의 『홍범황극내편보해』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2, 한국철학사연구회, 2019를 참고 바람.

55) 『範學全篇』 「凡例」, “古今聖賢惟孔子錄洪範於經, 朱子著皇極辨一篇, 爲大有功於箕子, 而此外惟蔡氏或釋其義, 或闡其數, 使洛書洪範之旨, 不泯於世, 其功盛矣.”

어진 도통을 계승한 학자로 평가한 것과 달리, 이현일은 이휘일의 행장에서 채침의 『서집전』은 의리만 풀어냈고, 『홍범황극내편』은 수를 부연하고 점법을 밝혔을 뿐이라고 하면서 그 한계를 언급하였다.<sup>56)</sup> 즉 박세채는 채침이 『홍범』의 의리와 수를 모두 밝혀 후세에 도움이 될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고 보았지만, 이현일은 의리와 수에 관한 채침의 연구만으로는 『홍범』의 진의를 후대에 전달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현일은 형 이휘일의 저술 의도에 따라 채침이 『홍범황극내편』에서 보여준 원리 혹은 리수(理數)에 관한 탐구보다 성인 경세의 구체적인 고증을 더 중시한 듯하다. 그래서 『홍범연의』에 주희의 점법 고증만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홍범황극내편』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채침이 만든 『홍범』의 점법 체계는 『주역』의 시초점과 달리 성인이 아니라 후대에 복원한 것이므로, 고대 성인의 경세를 상세히 고증하려는 『홍범연의』의 저술 의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현일은 머리말의 언급처럼 『계의』의 점법에 대해서는 더 참고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부득이 주희의 견해만으로 주석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홍범연의』에서 주희의 견해를 우선하였고, 결국 주자학의 관점에서 전(傳)을 구성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4. 결론

이상 서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이 글은 『홍범연의』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엇갈리는 까닭을 전체 구성과 주석의 활용 방식 검토가 미진한 탓이라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2장에서는 『홍범연의』의 저술 의도를 검토하였다. 이휘일은 기존 한당대의 주소와 채침의 『서집전』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 이를 보완

56) 『葛庵集』卷26, 「行狀」 “易經四聖而又有程朱傳義, 發揮羽翼, 無復餘蘊, 至於範疇, 蔡氏集傳, 只釋義理, 皇極內篇, 但衍數明筮而已, 此豈父師當日之遺意乎.”

하고자 했다. 그래서 홍범구주의 조목에 따라 성인의 경세를 직접 알 수 있거나 참고할 만한 각종 사례를 방대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이현일 역시 이회일의 입장을 계승하여 『홍범연의』를 완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경문 자체의 주석보다는 상세한 고증과 사례들을 모아, 후세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범연의』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홍범구주의 조목을 뼈대로 삼고, 경(經)과 전(傳)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인용하였다. 경(經)에는 성인의 경세를 서술한 경서의 내용이 인용되었고, 전(傳)에는 한당대 주소와 주희를 비롯한 송대 학자들의 주석이 인용되었다. 이 가운데 한당의 주소는 성인의 경세를 고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송대 학자들의 견해는 한당의 주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거나 역사적 사례를 거론할 때 인용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활용은 『홍범연의』의 존고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반면 세부 구성에서는 주자학적 관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황극」의 구성은 황극을 군주가 표준을 세우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황극을 중심으로 앞의 4주와 뒤의 4주를 구분한 주희의 황극 해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오행」과 「오사」 역시 주희의 견해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장에 배치된 주희 혹은 송대 학자의 견해 또한 한당의 주소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의 관점에서 「홍범」을 읽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3장에서는 『홍범연의』 「계의」를 주자학의 관점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다루었다. 전(傳)의 내용을 거의 주희의 견해만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이현일은 『의례경전통해』의 서술을 모범으로 삼았는데, 점법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역학계몽』과 『주역본의』 등에 수록된 주희의 견해만을 취하였다. 이는 채침의 『홍범황극내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박세채의 『범학전편』과 대비되는데, 성인 경세의 고증이라는 저술 의도에 합당한 자료만을 취하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홍범연의』 「계의」의 성격 규정에 대한 논란은 결국 천인(天人)의 일을 모두 아우르는 「홍범」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범」에 기술된 성인의 경세학은 실질적인 통치 행위와 각종 제도에 한정되지 않으며, 경세

는 물론 천문과 점법 등 자연학과 신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한대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 『홍범』 이해는 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천인(天人)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지닌다. 다만 주희는 점서(占筮)를 단순히 천인의 감응으로 보지 않고, 시초점 과정에 내재한 역리(易理)를 드러내어 한대의 자의적인 해석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홍범연의』 「계의」의 구성과 내용은 이러한 주희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홍범연의』는 홍범구주의 아홉 조목 별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고대의 경서와 한당대의 주소를 통해 성인의 경세를 고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존고(存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행」 「오사」 「황극」 「계의」 등 개별 장에 배치된 주희 등 송대 학자들의 견해는 주자학의 관점에서 「홍범」을 독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홍범연의』는 이휘일과 이현일을 비롯한 영남의 지식인들이 주자학의 관점에서 고대 성인의 경세학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 ■ 참고문헌

### 1. 원전

『葛庵集』 『範學全篇』 『書傳大全』 『易學啟蒙』 『朱子語類』 『洪範衍義』 『晦庵集』  
『四庫全書』(<https://www.kanripo.org/>)

### 2. 논저 및 역서

금장태, 『경전과 시대』, 지식과 교양, 2012.

김낙진, 『홍범언의』의 개혁사상,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김성윤, 『洪範衍義』의 토지개혁론과 상업론 - 갈암 이현일의 경제사상과 그 성격, 『퇴계학보』 119, 2006.  
\_\_\_\_\_, 『홍범언의』의 정치론과 군제개혁론 - 葛庵 李玄逸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영남남인의 실학적 경세론, 『대구사학』 83, 2006.

김정철, 『남계 박세체의 『범학전편(範學全篇)』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1.

\_\_\_\_\_, 『낙저 이주천 『신증황극내편(新增皇極內篇)』의 특징과 가치 - 조선시대 『홍범황극내편』 연구사의 맥락에서 -』, 『민족문화논총』 8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김홍수, 『洪範衍義』의 편찬과 간행, 『민족문화논총』 5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김홍수 외 옮김, 『국역 홍범언의』, 한국국학진흥원, 2016.

송정숙, 『大學衍義가 朝鮮朝 統治理念書 편찬에 미친 영향 - 中庸九經衍義와 洪範衍義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12집, 한국서지학회, 1996.

송찬식, 『洪範衍義 解題』, 『韓國學論叢』 5, 1983.

송치욱, 『홍범언의(洪範衍義)의 사상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 - 「황극皇極」편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50, 한국국학진흥원, 2023.

신주엽, 『17-18세기 箕子 유적의 정비와 기자 인식』, 『대구사학』 148, 대구사학회, 2022.

吾妻重二, 『朱子學の新研究』, 創文社, 2002.

劉起釡, 이은호 옮김, 『상서학사』, 예문서원, 2016.

이선경, 『조선 전기 상수역학연구 『홍범황극내편』의 수용과 이해 - 이순(李純)의 『홍범황극내편보해』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2, 한국철학사연구회, 2019.

이영호, 『『서경』 「홍범」 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 -이취일·이현일의 『홍범언의』 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2018.

정재훈, 『홍범언의』와 제왕학,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吳 震, 『宋代政治思想史上的“皇極”解釋 - 以朱熹《皇極辨》为中心』, 『퇴계학논집』 12, 영남퇴계학연구원, 2013.

주광호, 『역학과 주자학-역학은 어떻게 주자학을 만들었는가?』, 예문서원, 2020.

최영성, 『홍범언의(洪範衍義)』를 통해 본 存齋·葛庵의 학문,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한형주, 『홍범언의』에 보이는 국가제사,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Hongbeomyeonui* in Terms of Zhu Xi Studies

Kim Jeong-cheol\*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overall composition of *Hongbeomyeonui* 洪範衍義 and analyze its content to shed light on its nature in terms of Zhu Xi studies. Previous studies defined its nature in various ways with a focus on its nature as a book of practical science or its retro character. The present study set out to analyze in details its writing intention, overall composition, and cited annotations to demonstrate that it was a collection of annotations for *Great Plan* 洪範, sincerely reflecting the viewpoint of Zhu Xi studies.

The findings show based on the intentions of its authors that *Hongbeomyeonui* was written by Lee Hui-il and Lee Hyeon-il to supplement the lacking aspects of the old annotations and investigate with historical details the statecraft of the sages era to be delivered to later generations rather than presenting a new perspective or implementing a reform.

*Hongbeomyeonui* places the Confucian classics offering detailed descriptions of sages' statecraft and tries to provide historical researches on its specific content based on annotations from Han and Tang. It also includes opinions of scholars in Song along with Zhu Xi, trying to understand *Great Plan* in the viewpoint of Zhu Xi studies.

*Hongbeomyeonui* represents the fruition of Yeongnam's intellectuals including Lee Hui-il and Lee Hyeon-il that arranged the statecraft science of

---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Full-time Researcher

sages in the viewpoint of Zhu Xi studies.

**Key words** : Lee Hwi-il, Lee Hyeon-il, *Hongbeomyeonui* 洪範衍義, *Great Plan* 洪範, Examination of Doubts by Prognostication(稽疑), retaining the Old(存古)